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⑰ 당대(唐代) 최고의 역경승(譯經僧), 현장(玄奘)

▶ 한줄 요약
당 태종(이세민) 시대, 불교사에 길이 남을 역경승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법사는 서역으로 구법을 떠나 많은 경전을 가져왔고, 평생 그 경전들을 번역했다.



서역서 求法하고 평생 譯經에 헌신

당(唐) 건립 후 발생한 불도지쟁(佛道之爭)으로 인하여 고조(高祖)가 내린 경사(京師)인 장안(長安)에 다만 3개 사찰에 1천 명의 승려만 남기고, 나머지 사찰은 모두 왕공(王公)들에게 나누어주라는 조칙(詔勅)은 이세민(태종太宗, 재위 626~649)이 즉위하면서 대사면(大赦免)을 내려 겨우 폐불의 상황을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법림(法琳) 등의 호법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폐불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수대(隋代)의 봉불(奉佛)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까닭도 있고, 다른 측면으로는 바로 태종의 개방적인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태종은 비록 형제를 죽이고 황위에 올랐지만, 통치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이른바 '정관(貞觀)의 치(治)'라고 평가를 받는다. 이 시기에 불교사에 남을 뛰어난 역경승이 출현하였으니, 바로 현장(玄奘, 600~664) 법사이다.

서역에 구법하여 대량의 경전을 구해온 현장은 명대(明代)에 오승은(吳承恩)이 찬술한 소설 〈서유기(西遊記)〉의 주인공인 삼장 법사의 모티브가 되었다. 〈서유기〉는 삼장 법사가 손오공과 사오정, 저팔계 등과 함께 서역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 다양한 요괴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로 구성되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극과 영화, 만화 등 다양하게 각색되면서 동·서양에 상당히 잘 알려진 인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려 말에 유입되어 유행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한글본이 출현하여 민간에 널리 유통되어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고승이다.

현장의 전기는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입적 후 찬술된 거의 모든 승전에 실려 있다. 그러나 입적 후 제자인 혜립(慧立)과 언종(彦悰)에 의하여 편찬된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10권에 현장의 행적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전기에서는 현장의 서역 구법 과정의 일화 등을 서술하고 있어 현장이 찬술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12권과 함께 당시 서역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그의 역장(譯場)에 참여한 도선(道宣)의 〈속고승전〉 권4에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도선은 〈속고승전〉을 정관(貞觀) 19년(645)에 완성하지만, 현장의 입적(664) 후에 바로 그의 전기를 추보(追補)하였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의 행적과 업적은 지나치게 많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의 속명은 위(褘)이고, 속성(俗姓)은 진씨(陳氏)이며, 대대로 관료를 맡았던 집안 출신이다. 그렇지만 그의 부친인 진혜(陳惠)는 유학(儒學)에 매료되어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집안이 곤궁해졌다고 한다. 현장의 둘째 형인 진소(陳素)가 출가하여 장첩(長捷)의 법명을 받자 현장도 11세(620)에 형을 따라 낙양(洛陽) 정토사(淨土寺)에 머물면서 〈법화경〉과 〈유마경〉을 수학하였고, 13세에 정식으로 출가하였다. 그 후에 〈열반경〉 등을 청강하였는데, 현장은 15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분석에 있어서 뛰어나 대중들로부터 찬탄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수(隋) 양제(煬帝)의 실정으로 전란과 기근이 들자 현장은 형인 장첩과 함께 장안(長安)의 장엄사(莊嚴寺)로 옮겼지만, 당시 고승들이 촉도(蜀都: 현 成都)에서 경론을 강의한다는 소문을 듣고 촉도로 가서 〈섭론(攝論)〉과 〈잡아비담심론(雜阿毘曇心論)〉 등을 3, 4년간 청강하였다.

당(唐) 고조(高祖) 무덕(武德) 5년(622)에 촉도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무덕 7년(624) 촉도를 떠나 계속 남하하면서 형주(荊州) 천황사(天皇寺)에서 〈섭론〉과 〈잡아비담심론〉 등을 강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승려가 운집하였다고 한다. 이후 조주(趙州)로 가서 도심(道深)으로부터 〈성실론(成實論)〉을 수학하였고, 다시 양주(揚州)로 가서 혜휴(惠休)로부터 〈잡아비담심론〉과 〈섭론〉을 수학하였다.

정관(貞觀) 원년(627), 현장은 다시 장안으로 돌아왔고, 도악(道岳), 법상(法常), 승변(僧辯) 등과 〈구사론(俱舍論)〉, 〈섭론〉, 〈열반경〉 등을 연구하였는데, 당시 명성이 널리 퍼져 복야(僕射) 송소우(宋蕭瑀)가 조정에 상소하여 장엄사(莊嚴寺)에 주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장은 그동안 연구한 다양한 경론에 서로 다른 이설(異說)이 있음을 여실하게 느꼈는데, 특히 당시 유행하던 〈섭론〉과 〈지론〉에서 법상(法相)과 관련된 설을 통일시킬 수 없음을 답답하게 생각하였다. 그에 따라 삼승의 학설을 모두 종합했다고 알려진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구하고자 인도로 구법할 것을 결심하였다.

13세 때 낙양 정토사서 정식 출가
서역서 경·율·론 657부 가져와
경론·전기 60여 부, 1344권 번역
〈서유기〉 주인공 삼장법사 모티브



대자은사 광장에 있는 현장 스님 동상. 뒤는 현장 스님이 인도서 갖고 온 경전 등을 수장하기 위한 대은탑.

현장은 조정에 정식으로 인도 구법의 허가를 청하는 표(表)를 올렸지만 조정이 허락하지 않자 장안을 떠나 변방에 이르러 서역의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니, 이때가 29세의 일이다. 정관 3년(629)에 흉년이 들자 조정에서는 백성들에게 식량이 있는 곳으로 산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현장은 고장(古藏)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돈황(敦煌)을 거쳐 고창(高昌)에 이르게 되었다. 고창의 국왕은 불법을 신봉하여 현장을 환대하였고, 그의 도움으로 서역에 무사히 이르게 되었고, 서역의 수십 국을 통과하여 마침내 인도에 이르게 되었다.

현장은 마침내 목적으로 하였던 나란타사(那爛陀寺)에 도착하여 계현(戒賢) 법사를 참알하였다. 이로부터 현장은 계현 법사로부터 원래 목적으로 하였던 〈유가사지론〉뿐만 아니라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순정리론(順正理論)〉, 〈인명론(因明論)〉,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중론(中論)〉, 〈백론(百論)〉, 〈구사론〉 등을 학습하였고, 나아가 바라문교의 〈성명기론(聲明記論)〉까지도 학습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 인도의 고승들과 다양한 논쟁에 참여한 기록들이 보이는데, 논쟁에서 항상 현장의 견해에 승복하였다고 한다.

현장이 인도로부터 돌아와 장안에 도착한 때가 정관 19년(645) 정월이니, 처음 고장으로 출발한 지 17년 만의 일이다. 이 17년은 가히 목숨을 건 여정이었지만, 원래 현장이 목적한 바를 만족할 만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경·율·론은 657부(部)에 달한다고 한다. 서역으로 갈 때는 홀로 외로운 길을 걸었지만, 귀국할 때는 태종이 그 소식을 듣고 명령을 내려 곳곳에서 호위를 받으며 이른바 금의환향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장안에 도착한 이후 현장은 낙양으로 가서 태종을 만났는데, 태종은 서역과 관련된 저술을 부탁하였으며, 환속하여 관직을 맡으라고 권하였지만, 현장은 사양하였으며, 태종은 장안 홍법사(弘法寺)에 역장(譯場)을 차리게 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였고, 전국의 이십여 고승을 소집하여 역경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런데 태종이 이처럼 현장을 환영하고 역경에 도움을 준 것은 그가 불법에 귀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당시 황권은 고조로부터 친 도교적인 성향이었고, 태종 역시 불교를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태종이 현장을 중시한 것은 서역 정벌에 필요한 정보와 불교의 교세를 의식한 행보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태종의 개방적인 종교정책에 따라 유·불·도 삼교가 정립(鼎立)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불교에서는 다양한 종파가 활발하게 성립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현장은 태종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인도와 서역으로부터 가져온 경·율·론을 번역할 수 있게 되었다. 19년(645) 5월에 〈보살장(菩薩藏)〉 등의 번역을 시작하였으며, 다음 해에 태종이 요구한 〈대당서역기〉 12권을 완성하였고, 정관 22년(648)에는 〈유가사지론〉 100권을 완성하였다. 그로부터 가져온 수많은 경론을 번역하였으며, 현경(顯慶) 4년(659)에는 옥화궁(玉華宮)으로 옮겨 다음 해 〈대반야경(大般若經)〉을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용삭(龍朔) 3년(663)에 600권에 달하는 〈대반야경〉의 번역을 마친 후에 스스로 체력이 다했음을 알고 번역을 중단하였으며, 인덕(麟德) 원년(664) 초에 병환이 심해져 2월 5일 중야(中夜)에 세수 62세로 입적하였다.

현장이 입적할 때까지 역장에 참여한 도선의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에는 현장이 번역한 경론과 전기가 60여 부, 1344 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경론과 전기 등이 모두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 〈성유식론(成唯識論)〉으로부터 바로 법상유식종(法相唯識宗) 혹은 자은종(慈恩宗)이라고 칭하는 종파를 건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종파는 제자인 규기(窺基) 이후에 단절되는데, 그 원인을 흔히 인도의 농후한 사변적인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여 중국인들에게 맞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장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과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범어로 번역하여 오천축국(五天竺國)에 두루 배포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

도선의 〈속고승전〉에서는 현장의 입적을 아쉬워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말과 범어에 모두 능하고, 범문(梵文)의 핵심을 교묘하게 달통하며, 국풍(國風)을 이끌어 사도(邪道)와 정도(正道)를 가르쳐 깨닫게 한 사람을 꼽는다면, 현장 법사보다 공덕이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일은 서역으로부터 가지고 온 경부(經部) 가운데 아직 번역하지 못한 것이 절반이 넘게 남아 있고, 나이가 아직 말년에 이르지 않아 이를 세상에 내놓을 수도 있었는데, 무상(無常)이 갑자기 닥치니, 애석하구나!"

마지막까지 현장의 역장에서 함께 했던 도선의 평가는 가슴에 깊게 와 닿는다. 서역과 인도의 구법 17년, 총 만리(萬里)에 달하는 역정, 거쳐 간 나라가 138개국, 중국에 돌아와 19년의 역경과 찬술은 바로 현장 법사가 우리에게 남긴 법은(法恩)의 소재(所在)라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 인 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주지 연암 현응 대화상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 (055)934-3000 Fax 934-3010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